

근대전환기 유학자 後石 吳駿善의 활동양상에 대한 고찰*

장선희*

<차 례>

1. 서 언
2. 후석 오준선의 생애와 평가
 - 2-1. 후석 오준선의 생애
 - 2-2. 후석 오준선에 대한 평가
3. 후석 오준선의 수학활동과 강학활동
 - 3-1. 후석 오준선의 수학활동
 - 3-2. 후석 오준선의 강학활동
4. 후석 오준선의 저술활동과 문학활동
 - 4-1. 후석 오준선의 저술활동
 - 4-2. 후석 오준선의 문학활동
5. 결 론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근대전환기에 광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후석 오준선(1851-1931)의 전반적인 활동양상에 대한 고찰이다. 근대전환기는 국문학적 관점에서는 고전 한문학과 근대 국문문학이 교체되는 시기로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근대 전환기의 유학자 후석 오준선의 활동을 통하여 고전문학과 근대문학의 교체기에 한문학이 어떻게 존재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근대 전환기의 한문학에 대한 연구는 고전문학과 근대문학의 충돌과 공존, 이행의 과정에서 존재했던 한문학 활동을 통하여 우리 문학의 전통의 계승과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광주보건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하였음.

** 광주보건대학교

변화, 교체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후석 오준선을 문학적인 관점에서 처음 고찰하는 관계로 후석 오준선의 전반적인 활동양상을 다루어 후석 오준선에 관한 개괄적인 파악을 먼저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괄적인 고찰은 후석 오준선의 문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기초라는 점에서 후석 오준선의 문학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주고 있다.

핵심어 : 근대 전환기, 광주 광산 지역, 유학자, 후석 오준선, 활동양상, 한문학

1. 서언

근대전환기에 처하였던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 이 시기는 그때 까지 겪었던 왕조교체나 당파싸움 등으로 인한 내부적인 갈등이나 충돌의 시기가 아니었다. 근대라는 서구 문화의 전반적인 도래와 외세에 의한 국가의 찬탈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시기였다. 이러한 격변기에 생존했던 사람들의 근대와 외세의 침입이라는 상황에 대한 대처의 방법은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대처와 대응 방식은 신문화의 전면적인 도입과 이식의 과정에서 전통의 고수와 계승을 위한 작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실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근대 이전의 봉건사회에서 식자층이면서 지배층이었던 유학자들의 새 시대에 대한 대응방식은 많은 관심을 갖게 한다. 당시까지 정치 사회 문화의 주류였던 유학자들은 자신들의 존립기반이었던 사상 체계와 봉건 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가장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새롭게 밀려드는 사상과 문화에 대한 대처와 대응의 방법들을 강구하여야만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지금까지 한문학의 생산자들인 유학자들이 근대전환기에 어떻게 활동하였는가를 그들의 한문학 활동을 중심으로 고찰해 왔다. 본 논문도 이런 작업의 일환으로 근대전환기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후석 오준선의 활동을 통하여 근대전환기에 생존했던 유학자들의 활동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은 근대전환기에 이루어진 한문학 활동의 실상을 파악하여 한문학의 연구영역을 넓히고 고전문학과 근대문학의 충돌과 공존, 이행의 과정에서 존재했던 한문학 활동을 통하여 우리 문학의 전통의 계승과 변화, 교체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지역의 유학자로 本貫은 羅州이며 字를 德行으로 하고 號는 後石이다.¹⁾

후석 오준선에 대한 관심은 역사학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역사학에서 후석을 주목하게 된 것은 후석의 문집에 수록된 義兵將들과 義士들의 傳記때문이었다. 이들 기록으로 인하여 역사학계에서는 후석을 광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말 의병운동을 일으켰던 유생들의 중심인물로 주목하면서 위정척사운동과 의병투쟁을 주도한 인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후석에 대한 역사학계의 이러한 평가와 관점을 달리하여 한문학 생산자로서의 후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한문학 생산자로서의 후석에 대한 고찰은 본 논문에서 처음 시도되는 관계로 후석의 생애와 문학활동에 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고찰이 이루어질 것이다. 후석의 생애와 사상, 그의 문학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이 선행되어야만 이후 그의 문학에 관한 질적인 내용연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1)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五, 家狀, 538쪽. :先生諱駿善字德行號後石...

2. 후석 오준선의 생애와 평가

2-1. 후석 오준선의 생애

본 논문의 고찰 대상인 吳駿善(1851-1931)은 1851년 12월 羅州郡 三道面 道德里 道林마을(현 광주 광산구 도덕동 도림마을)에서 태어나 1931년 6월 81세로 도림리 자택에서 세상을 떠난²⁾ 이 지역의 유학자로 字는 德行이요 號는 後石이며 本貫은 羅州이다.³⁾

후석의 가문인 나주 오씨 집안은 나주의 토호 多隣의 딸이 궁예의 부장으로 나주에 출전한 왕건과 혼인하여 918년 왕건이 즉위하자 태조비인 莊和王后가 되고 고려 2대 혜종을 낳았던 가문이다.⁴⁾ 조선조에 들어와 현달한 인물로는 襄平公自治, 翰林希道, 石門先生⁵⁾을 들 수 있다.

襄平公自治 (1426 - ?)는 조선 전기의 무신이자 공신으로 諱는 自治, 號를 西山이라고 했다. 세조대에 李施愛의 亂을 討平한 공로로 敵愾功臣이 되어 兵曹參判을 제수받고 羅城君에 봉해지면서 本貫을 羅州로 하였다. 사후에 吏曹判書에 追贈되고 襄平公이라는 諡號와 不祧를 특사받았다.⁶⁾ 翰林希道(1583~1623)는 襄平公의 손자로 諱는 希道, 字를 得原이라 하였는데 錦城의 大明谷에서 태어나 5세 무렵에 부친인 彦彪가 처가인 창평으로 거처를 옮김에 따라 後山里에 있는 외가로 옮겨와 성장하였다. 希道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재기가 숙성하였으며 19세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광해조에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자신이 태어났던

2)『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五, 墓誌銘并序, 581쪽.:..先生以 哲宗辛亥十二月六日生以八十一辛未六月二十一日 棄..

3)『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五, 家狀, 538쪽. :先生諱駿善字德行號後石...

4) 성씨총람-나주 오씨-인물소개- 네이버블로그,

5)『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五, 墓表, 587쪽. : 襄平公自治 翰林希道 石門先生 以翼國朝最顯也

6)『後石遺稿卷之二十五 附錄 家狀 538쪽.:.. 諱自治 世祖朝討平李施愛亂策敵愾 勳兵曹參判封羅城君 贈吏曹判書 諡襄平 特賜不祧...

大明谷의 지명을 빌려 明谷이라 자호하면서 瑞石山을 바라볼 수 있는 후산 기슭에 ‘忘齋’를 짓고 自適하였다. 인조 원년인 41세에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한림원의 추천으로 記注官의 일을 대행하였는데 일을 기록함에 있어 문장의 어휘가 넉넉하고 기록이 민첩하여 대신들의 칭찬을 받았다. 얼마 후에 檢閱에 임명되었으나 痘瘡에 걸려 객사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⁷⁾ 친구였던 鄭弘溟은 希道の 墓碣銘에 ‘공은 기질이 순수하고 말하고 웃을 때는 절도가 있었으며 강건하나 남을 제압하지 않았고 온화하였으나 남에게 휩쓸리지 않았다. 일찍이 책을 읽으면서는 귀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오는 천박함을 일삼지 않았다. 안으로 굳건히 지키고 밖으로는 경계가 없었으므로 대체로 남을 대할 때 少長과 貴賤을 막론하고 각각 환심을 얻었다.’고 기록하면서 希道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임금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별도로 은혜로운 賻儀를 내렸으며 동조의 인사들이 모두 조문하고 애석해 하였다고 기록하였다.⁸⁾ 石門先生(1618-1666)은 希道の 다섯 아들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나 季父인 希有에게 양자되었는데 諱를 以翼, 자를 子紱라 하였다. 29세 때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35세 때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가 되었으며 성균관 전적, 예조 좌랑, 병조 좌랑 겸 지제교를 역임하였고 40세가 되던 때에는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외직을 청하여 함평 현감이 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遞職되기를 청하여 돌아갔는데 함평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 그의 덕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백성 중에서 형장을 받은 자의 모함을 받아 초산으로 유배당하였다 다음 해 풀려나자 벼슬에 대한 뜻을 버리고 巖穴 사이에 書室을 짓고 ‘息齋’라 편액하고 ‘石門居士’라 자호하면서 여생을 보내다가 49세에 세상을 떠났다. 金昌翁은 希道の 墓誌銘에 ‘공은 단정하고 신의가 있으며 엄격하고 결백하여 특별한 지조가 있었다. 비록 일찍이 擧業을 폐하지는 않았으나 오히려 性理書를 외우고 익혀 心地를 배양하였으니 대체로 근본에 힘쓴 뜻을 아름답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사양하는 것과 받는 것을 삼갔고 구차하게 교

7) 『後石遺稿卷之二十五 附錄 家狀 539쪽:... 翰林諱希道...

8) 『국조인물고』권 28 名流

제하지 않았으며 남의不善을 보면 그 얼굴에 침을 뱉을 것처럼 하였고 비록 高官에 있는 권세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조금도 아첨하지 않았으므로 벼슬길이 막힌 것은 대체로 이 때문이었다'고 기록하였다. 또 石門先生은 子姪들을 尤齋 宋先生(宋時烈)에게 보내어 수업을 받도록 하면서 경계하기를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할 뿐이니 科名은 곧 外物이다” 하였는데 임종에 이르러서도 이 말을 유언으로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인연으로 하여 후석의 학풍은 노사의 학풍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호학파의 여러 학자들과의 교류를 계속하였다. 石門先生은 2남3녀를 두었는데 内外의 손자와 증손자들이 모두 1백명에 이르렀다고 한다.⁹⁾ 이들 외에 후석의 선조들 중에서 이름있는 사람으로는 중·명종, 선조 조의 명신으로 吳謙(1496-1582)이 있는데 자를 敬夫, 호를 知足庵이라고 하였다. 吳謙은 27세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별시문과에 합격한 후 의령현감으로부터 시작하여 담양부사·광주목사를 거쳐 우의정에 까지 이르렀으며 55세에 錦陽君으로 봉해졌다. 69세가 되던 해에 좌찬성에 오르고 왕으로부터 几杖을 하사 받았으며 지춘추관사가 되어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고 우의정에 이르렀다. 또한 담양부사로 재직할 때는 송순이 지은 면양정을 증축할 것을 권유하고 면양정을 증건하는데 助力하였다.¹⁰⁾ 吳謙의 아우인 吳諫의 손자 吳希吉(1556-1623)은 자를 吉之, 호를 韜庵이라 하였는데 전주에 있는 경기전 참봉으로 재직하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주사고의 《조선 왕조실록》과 조선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내장산으로 옮겨 보전한 공으로 衛聖功臣에 녹훈되었다. 希道의 넷째 아들이자 석문거사 以翼의 동생인 吳以井(1619~1655)은 부친인 吳希道가 41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이듬해에 부친이 소요하던 담양군 고서면 산덕리에 鳴玉軒을 짓고 연못을 만들고 백일홍을 심어 苑林을 조성하고 아버지를 추모하였으나 그

9) 『국조인물고』권 29 名流

10) 『俛仰集』卷五 48, 年譜:… 年譜: 潭陽府使吳公謙偕登俛仰亭勸以重葺且許助力 是歲成之 奇高峰大升記之 林白湖悌又賦之.. 김성기, 「면양송순시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8. 273쪽. 재인용.

역시 37세에 병으로 요절하였다.

후석은 부친 吳夏圭(1829~1872)와 모친 錦城 羅氏(생몰년 미상)의 3남 중 장남으로 태어나서 백부인 錦沙 吳恒圭(1824-1874)에게 양자되었다. 후석은 양부인 금사공의 지도로 8세 때부터 학문을 시작하여 평생 동안 유학자로서 수학과 강학, 저술 활동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유학자로서의 삶은 근대전환기에 많은 수난과 갈등을 겪어야 했는데 후석이 겪었던 이러한 수난과 고초는 당시 대부분의 유학자들이 직면했던 것이기도 하였다.

근대전환기에 유학자들이 취했던 태도는 크게는 ‘衛正斥邪’와 ‘開化’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 ‘衛正斥邪’를 실현하는 구체적 행동양식으로는 ‘의병을 일으켜 외적과 국내의 역적을 쓸어내는 ‘舉義掃清’과 더럽혀진 땅을 떠나서 옛 법도를 지키는 ‘去之守舊’, 죽음으로써 자신의 지조를 지키는 ‘致命遂志’¹¹⁾로 나누거나, ‘죽음으로써 지조를 지키는 ‘致命遂志’, 나무를 끌어안고 굶어죽는 ‘抱木枯死’, 숨어 살면서 제자를 길러 훗날 陽의 기운을 회복할 터전을 닦는 ‘隱居授道’¹²⁾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면, 근대전환기에 후석이 취하였던 태도는 ‘去之守舊’와 ‘隱居授道’에 속하는 ‘抱道自靖’의 양식이였다.¹³⁾ ‘抱道自靖’이란 어지러운 시대에 道를 품고 조용히 스스로를 다스리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去之守舊’나 ‘隱居授徒’과 같은 행동 양식이다. 후석은 ‘抱道自靖’의 실현방법으로 당시와 같이 正學이 흐트러지고 邪說이 난무하는 시기에 異端邪說에 문란해지고 혼란스러워 가는 사회의 풍토를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강학활동과 저술활동을 택하였다.

11) 『毅庵集』 권55 부록 년보 을미(1895) 11월15일조, -안동교, 「吳駿善의 학문성향과 의리정신」, 『유교사상연구』 제47집, 130쪽에서 재인용.

12) 田遇, 『良齋先生全集』 下, 書, 與宋東玉秉珣, 345쪽. 안동교, 「吳駿善의 학문성향과 의리정신」, 『유교사상연구』 제47집, 131쪽에서 재인용.

13) 『後石先生文集』 四, 後石遺稿 卷之二十五, 附錄, 行狀, 566쪽. ∴ 自世變此極尤浸入山之志 入處石門先廬居數年 同志及門生相與謀及築室於聳珍山中 抱道自靖 不知年數之不足..

후석은 평생동안 강학활동을 통하여 수많은 제자들과 문인들을 교육하였다. 1931년 6월 21일에 81세로 후석이 세상을 떠나자 7월 14일에 安葬될 때까지 장장 24일에 걸쳐 장례가 치러졌다. 그 기간동안 장례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자들이 120여명에 달하였고 직접 상여를 운구했던 執紼者는 76명이었으며 장례에 참여했던 수효가 사오천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¹⁴⁾ 또한 조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근 십리에 미치도록 끊어지지 않았으며 祭文과 輓誄가 도로에 계속 이어져서 밤이 아닌 듯 하였다고 한다.¹⁵⁾ 후석의 임종과 조문, 장례의 과정은 門人 梁相賀에 의해 ‘辛未日記’¹⁶⁾라는 제목으로 자세하게 정리 기록되었다. 후석의 장례 절차와 규모는 후석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근대전환기의 유학자들의 위상과 활동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2-2. 후석 오준선에 대한 평가

후석에 대해서 당시의 학자들은 ‘後石先生¹⁷⁾’이라고 높여 부르면서 ‘山斗’, ‘南士之冠冕’¹⁸⁾으로 칭송하였고 ‘천하의 정무를 능히 맡아 할 만한 그릇’¹⁹⁾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후석의 학문과 인품은 당시 학자들의 師表로 인정을 받았다. 또한 그는 ‘賢德할 뿐만 아니라 豪爽英發함이 다른 이들보다 월등’²⁰⁾하였고 ‘後學들의 指南’²¹⁾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14) 『聳珍誌』上, 卜居始末, 9쪽:…加麻執紼者七十六人 士林會葬者 無慮五六千人..

15) 『後石先生文集』4, 辛未日記, 603쪽.

16) 『後石先生文集』4, 辛未日記, 599-605쪽.

17)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五, 奇老善, 墓誌銘 并序,,581쪽 :..學者稱後石先生...

18)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五,:…①高光善, 行狀, 573쪽:…使南士仰之若山斗 知聖學之可尊 諛淫之可闕者 夫豈偶然乎哉 ... ②鄭琦謹, 墓表, 589쪽:…蓋當是時域中長德殆盡凋喪而公巋然獨存 遠近人士倚重如山斗焉.. ③金甯漢, 墓碣銘 并序, 574쪽:…錦城之聳珍山下有吳後石先生 經明行修 義理嚴正爲南士之冠冕...

19)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五, 附錄, 家狀, 554-555쪽:…當世士論皆稱 詡曰 可以爲廊廟之器...

당대의 재상들이었던 權益相, 徐載克, 金憲鎭 등도 모두 후석의 풍의를 흠모하면서 극진히 존경²²⁾하였다고 한다.

금세에 들어오면서 후석에 대한 관심은 역사학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후석의 문집인 『後石先生文集』卷之二十二부터 卷之二十四까지는 조선 중기부터 조선 말, 또는 후석 당시에 이르기까지 왜적들에 저항하여 싸운 무신이나 의병장, 유생의병들의 行狀과 傳들이 실려 있는데 이들 기록 때문에 역사학계에서는 후석을 광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말 의병운동을 일으켰던 유생들의 중심인물로 주목하고 ‘노사학과의 위정척사운동과 의병투쟁을 주도한 인물 중의 한사람’²³⁾으로, 또는 ‘위정척사운동에 앞장 선 화서학과의 학문을 수용한 의병운동과 근대 민족주의 선비정신을 가진 인물’²⁴⁾로, ‘노사학과의 위정척사운동을 주도한 인물’²⁵⁾로 평가하면서 위정척사운동과 의병투쟁운동으로 근대전환기를 대응하고자 했던 인물로 이해하고 있다. 또, 1970년에 광복 25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 독립운동사 중 의병항쟁사 부분이 후석이 쓴 의병들의 전기를 기초하여 편찬한 것이었다고 하며, 2006년에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주최로 독립기념관에서 <오준선과 한말의병>이라는 주제의 발표²⁶⁾도 있었다. 또한 2011년 11월에는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주최로 <후석 오준선의 생애와 사상>²⁷⁾을 주제로 한 연구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오준선의 가계와 생애’, ‘오준선

20)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五, :遺事 592쪽 :白隱奇公東亮 嘗言曰 域中覽德皆知之 而其豪爽英發未有如先生者..

21)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五, :遺事 597쪽: 後菴曰 今先生士望益隆世道之責任不輕 惟願著說 以爲後學之指南也..

22)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五, :遺事 597쪽: 華陽洞保存事道會於筆院時 權參判益相 徐結城載克 金祀丞憲鎭來叅 而皆欽仰其風儀 而極致尊敬焉..

23) 김상기, 『한말의병연구』, 일조각, 1997. 83쪽.

24) 오영섭, 『화서학과의 사상과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1999, 371쪽.

25)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연구』, 일조각, 2004, 86쪽.

26) 노기욱, 「오준선의 가계와 생애」, 『후석 오준선의 생애와 사상』,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1. 1-23쪽.

27) 노기욱, 「오준선의 가계와 생애」, 안동고, 「오준선의 학풍과 성리사상」, 홍영기, 「오준선의 의병전 저술과 후학양성」, 『후석 오준선의 생애와 사상』,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1.11.16.

의 학풍과 성리사상', '오준선의 의병전 저술과 후학양성' 등 후석의 의병 항쟁과 관련된 부분들에 초점을 둔 발표들이 중심내용을 이루었다.

3. 후석 오준선의 수학활동과 강학활동

3-1. 후석 오준선의 수학활동

후석은 8세에 학문을 시작하였는데 뛰어나게 총명하여 바로 文義를 깨우쳤으며 배움에 든 지 겨우 8개월이 되던 때에 祖考의 襄禮를 당하여 능히 祝辭를 읽어내므로 종족들이 모두 후에 뛰어난 才器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²⁸⁾ 후석의 양부였던 錦沙公은 성격이 簡亢하여 가르침에 반드시 법도가 있고 課程을 엄히 하여 후석으로 하여금 放過함이 없도록 하였다. 금사공은 후석이 학문하는 방법을 터득하자 그를 族叔인 臨履齋에게 보내어 四書와 心經, 近思錄 등을 배우게 하였다. 후석의 첫 번째 스승이었던 臨履齋 吳泰圭(1795-1866)²⁹⁾는 집안의 族叔으로 蘆沙 奇正鎭(1798~1879), 守宗齋 宋達洙(1808~1858)등과 교유하였던 조선 후기의 유학자였다. 臨履公에게서의 修學은 후석이 蘆沙 奇正鎭(1798~1879)에게로 가던 18세 무렵까지 10여년 동안 계속되었다. 臨履公에게서 수학할 때 후석은 臨履公의 손자인 難窩 吳繼洙(1843-1915)와 함께 수학하였는데 두 사람은 함께 講磨切磋하기를 오래도록 손에 책을 들고 익히기를 게

28)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五, 附錄, 家狀, 539-540쪽.: ..八歲入學甚穎 悟便曉文義 才八朔當祖考襄禮 能讀祝辭 宗族咸以遠大期之..

29)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한국학중앙연구원,

http://people.aks.ac.kr/front/tabCon/ppl/pplView.aks?pplId=PPL_6JOc_A1795_1_0021561): 臨履齋 吳泰圭(1795-1866): 조선 후기 유학자. 자는 덕현(德現), 호는 임이재(臨履齋)이다.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그의 문집으로 《임이재유고(臨履齋遺稿)》가 있다.

을리하지 않았으며 石門이나 永思齋 등의 처소에서 주야로 침식을 잊고 궁구하는 것을 거의 10여 년 동안 계속하였다.³⁰⁾

18세(1868년)때 후석은 吳繼洙와 함께 장성 진원의 하사마을에서 강학 하던 蘆沙 奇正鎭(1798~1879)을 찾아 뵈었다.³¹⁾ 노사 기정진은 장성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理一分殊의 唯理論을 주창하여 ‘조선 성리학의 6대가’ 또는 ‘조선 후기 3대 유학자’ 중의 한 사람³²⁾으로 평가받았던 저명한 유학자였다. 또 노사는 화서학과의 태두인 李恒老와 함께 衛正斥邪 思想의 이론적 체계를 세웠으며 이론의 현실 적용과 사회적 실천 운동에 큰 관심을 가졌다.³³⁾ 노사는 평생토록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강학활동에 열중하여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하면서 노사학파를 형성하였다. 노사의 문하에 몰려든 노사의 문인들은 학문을 연마하는 한편 노사의 衛正斥邪 思想을 계승하여 근대전환기에 밀려드는 서양의 문물과 일본의 침략에 맞서 衛正斥邪運動과 義兵活動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³⁴⁾ 후석이 노사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하였을 때 노사는 71세로 진원의 하사마을에서 만년의 강학활동을 펼치던 때였다. 그때 후석이 노사와 주고받은 문답의 내용이

30)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五, 家狀, 540쪽: ...遂就學於臨履吳公泰圭受四子心近等書 臨履公嘗稱之曰 汝母氏婦德之賢宜生汝云 難窩先生繼洙卽臨履公孫也 相與講磨切磋到老不懈攜書肄業多在石門永思齋等處 窮晝夜忘寢食者 殆十餘年...

31)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五, 附錄, 行狀, 562쪽: ...十八謁蘆沙奇先生於沙上 先生喜之曰 文獻名家 又見汝可幸 以耳目聰明 男子身勉學期待甚重 自是尤發憤凝神探究精深期臻昭曠之原 禮變經疑面質書 稟弗得不措 愜然如大寐得醒 而服勤十年 遽遭山頽事一之誠到 老采篤 每當忌日必行素達曙倡謀 同門俾樹石儀繼置祭田以守護焉..

32) 玄相允, 『朝鮮儒學史』, 民衆書館, 1977 (6판), 368쪽. : ...奇正鎭 :近世 儒學의 中心이요 또 近世 儒學을 참으로 代表할 만한 學者는 三人이 있으니 曰 奇蘆沙, 李華西, 李寒洲 三人이다. 그 中の 蘆沙와 華西는 別로 傳受한 淵源도 없이 다 各各 獨力으로 平地에서 屈起한 篤學者들이다. 그리고 그런 中에도 特히 蘆沙는 觀察이 非凡하고 研究가 篤實하여 花潭, 退溪, 栗谷, 寒洲, 鹿門으로 더불어 理學의 六大家라고 指稱된다...

33) 홍순권, 「한말 호남 의병의 계보와 사상」- 고헌순 의병활동의 사상적 배경을 중심으로-, 4쪽.

34) 박학래, 「19세기 호남 성리학의 전개와 특징」-노사 기정진과 노사학파를 중심으로 -, 국학연구 제9집. 227쪽.

‘沙上贄謁錄’³⁵⁾에 자세하게 쓰여 있는데, 노사는 후석을 만나자 “너의 집안이 본디는 文學行義로 우리 남쪽에서 일컬어졌는데 근래에 적막하여 내가 심히 慨惜해 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배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겠느냐, 後進인 너희들은 더욱 노력하여 배워서 이 노인의 바라는 바를 저버리지 말아라.”고 당부하였다. 이로부터 후석은 더욱 스스로 뜻을 세우고 격려하면서 한 곳을 정하여 은거하고 정신을 모으고 생각에 잠겨 오묘한 이치를 탐구하면서 昭曠之原에 이르기를 기대하였으며 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矻矻하였다. 이후 노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10여년 동안 후석은 노사의 문인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며 노사의 高弟로 추앙받았다.³⁶⁾

후석은 노사의 문하에서 수학하면서도 자신의 학문적 영역을 넓히고자 24세(1874년)때에는 全齋 任憲晦(1811-1876)를 만나고 立齋 宋近洙(1818-1903)를 찾아 拜謁하였다. 50세(1900년)와 51세 때에는 淵齋 宋秉璿(1836-1905)과 勉菴 崔益鉉(1833-1906)을 찾아가 만났다. 후석이 淵齋 宋秉璿과 勉菴 崔益鉉을 찾아가 만났던 기록은 ‘西遊錄’과 ‘西行錄’³⁷⁾에 방문의 목적과 일정까지 자세하게 밝혀져 있는데 선조들의 문집 간행을 위한 글을 받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으며 아울러 학문과 세태에 대한 토론과 질정을 함께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후석은 일생동안 힘을 다해 경전을 연구하고 역사를 세밀하게 궁구하였는데 가장 힘써 공부하였던 것은 小學書였다. 그리하여 정신을 存養하는 것을 더욱 정밀하게 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것을 더욱 독실하게 하여 一言一動이라도 진실로 법도에 맞게 행하였으며 應事接物에는 毫釐라도 차질이 없게 하였다.³⁸⁾ 후석은 노사의 문하에서 奮勵하여 정밀히 궁구하

35) 『後石先生文集』二, 後石遺稿 卷之七, 雜著, 沙上贄謁錄, 90-91쪽.

36) 『聳珍誌』上., 23쪽: 門人幸州奇堯錫謹書: ...先生以蘆門高弟蔚然爲世宗仰 吾儒種子 賴先生 而不迷趨向其所以承先牖後之功 豈尋常小腹所可窺測耶...

37) 『後石先生文集』二, 後石遺稿 卷之七, 雜著, 92-110쪽. ‘西遊錄’, ‘西行錄’

38)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五, 附錄, 墓碣銘 并序, 578쪽: ...一生精力 在乎研經紬史而最用工者 惟小學書已 存養益密踐履益篤 一言一動洵蹈規矩 應事接物 不差毫釐...

고자 하였으며 밝은 것이 아니면 함께 섞지 아니하였는데 소학을 가장 독실하게 믿어 종신토록 服行의 요체로 삼았다.³⁹⁾

3-2. 후석 오준선의 강학활동

후석이 가장 강조하였던 것은 교육이었다. 당시 서양의 신문화와 신문물이 전방위적으로 밀고 들어오고 외세가 나라의 존립을 위협하는 총체적인 난국을 타파할 수 있는 길은 조선조 500년을 유지시켜 왔던 성리학을 더욱 부지런히 교육하여 해이된 기강과 윤리를 바로 잡고 봉건의 제도를 더 공고히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그러한 난세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여러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부지런히 배웠으며 후진들을 붙잡고 교육하는 것을 권장하여 많은 것을 성취하도록 하였으며 잘못된 것을 막고 邪說을不息시키는 것을 자신의 소임으로 삼았다.⁴⁰⁾ 후석의 교육활동에 대한 신념을 더욱 공고하게 한 것은 노사의 위정척사사상이었다. 노사의 많은 문인들은 1895년 이후 國母가 被殺당하는 凶變과 大駕가 蒙塵하는 慘變, 그리고 또 毀髮의 변을 당하면서 노사의 손자인 奇字萬을 중심으로 倡義하여 의병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후석은 은둔과 후진 양성, 역사적 사실의 기술이라는 ‘抱道自靖’의 방식으로 당시의 상황에 대응하였다. 후석은 40세(1890년)가 되던 해에 松沙 奇字萬(1846-1916)과 함께 매일 초하루에 輪講을 실시하여 많은 선비들이 行義에 기틀치 못함을 염려하여 인재를 모아 교육하는 풍토를 이루었다.⁴¹⁾ 44세(1894년)때 일어난 갑오경장 때에도 후석은 동학이 소요하고 邪說들이 크게 일어나 무지한 우민들이 방황할 때 동지들을 규합하고 鄉約을 행

39)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卷之二十五, 附錄, 墓表, 587쪽: ...年十八登蘆沙先生門 亟蒙寵獎益自奮勵精究實踐弗明不得俱弗措也 最篤信小學爲終身服行之要...

40)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五, 附錄, 墓表, 588쪽: ..方獎育後進捉掖而激勵之多所成就 常以距詖息邪爲己任..

41)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五, 附錄, 家狀, 542쪽: ...庚寅與松翁設月朔輪講 以勵多士行之未幾彬彬 有菁莪之風...

하여 선악을 구별하게 하고 상벌을 시행하며 사특한 것들을 불식시키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⁴²⁾ 46세(1896년)에는 기우만이 장성에서 일으킨 의병활동을 지켜보면서 士氣가沮喪하고 邪學이 날로 성해지는 것을 우려하여 鄉約을 설치하고 藍田 石潭의 遺規를 모방하여 民風을 진작시키고자 하였다.⁴³⁾

경술 함방이후 일제가 儒紳耆老들을 회유하고자 恩賜金을 하사하자 후석은 “이 돈을 받을 수 없는 의리가 세 가지 있으니 대저 선비는 窮居獨善할지라도 義가 아니고 道가 아니면 한 터럭이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할 수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제 어찌 원수 나라의 돈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받을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요, 三軍에게서 그 장수를 빼앗을 수는 있으나 匹夫에게서 그 뜻을 빼앗을 수는 없는 것이니 내가 비록 어리석고 용렬하고 狂妄하여 사람들의 가장 아래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지켜야 할 바가 있으며 구렁에 빠져서도 근본의 뜻을 잊지 아니하였는데 만약 원수임을 잊고 억지로 부끄러워하면서도 받는다면 스스로 喪志失身之地로 돌아가는 것이니, 이것이 받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요, 亡國遺民으로 능히 제 몸을 버려서라도 宗社의 丘墟함을 차마 보지 않았어야 하는데 다만 통분함을 참고 원통함을 품으면서 自靖以獻의 뜻을 두어 耿耿히 한결같이 하면 홀로 천지의 귀신이 있어 실제로 監臨할 것인즉 이것이 받지 못하는 세 번째의 이유가 된다.”⁴⁴⁾라

42)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五, 附錄, 家狀, 543쪽: ...甲午東擾邪說大熾 無知愚氓舉皆風靡 先生憂之乃與同志糾合 坊民行鄉約置善惡 籍施賞罰 以距謖息邪 自任...

43)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五, 附錄, 家狀, 544쪽: ... 翌年春松翁倡義於 長城 先生方居憂未得從事未幾 宣諭南下乃 痛哭入山 自是士氣沮喪 邪學日盛 先生 淡以爲憂 乃設鄉約倣藍田石潭之遺規 以振作民風以振作民風於是俗尚丕變隣邑多化 之..

44) 『聳珍誌』上, 11-12쪽, 抵本郡守: ... 況此金不可冒受者其義有三 夫士之窮居獨善者 非其義也非其道也 一介不以取諸人一介不以受諸人 則今何可妄受讎國之金乎 此其不可受者一也 三軍可奪帥也匹夫不可奪志也 吾雖愚庸狂妄最出人下其所守則有不忘在 壑喪元之志 今若忘讎強慚靦然受之 則自歸於喪志失身之地 此其不可受者二也 亡國 遺民不能捐軀忍見宗社之丘墟 只有忍痛含冤自靖以獻之義耿耿一念 獨有天地鬼神實

고 은사금을 받을 수 없는 세 가지의 이유를 글로 써서 보내어 거절하였다. 그 일로 후석은 오계수와 함께 일경에게 끌려서 비아三巨里小隊로, 林谷兵站으로, 長成分隊로 옮겨 다니면서 협박과 회유와 강권함으로 20여일을 시달렸으나 끝까지 받을 수 없다는 뜻을 밝혀 후석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서 전달할 수 없노라는 倭警의 포기를 받아내고 귀가하였다. 후석의 은사금 거절의 전말은 ‘卻金顛末’, ‘抵本郡守’, ‘抵三巨里憲兵所’ 등의 글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⁴⁵⁾

은사금 사건으로 20여일의 고초를 겪고 나온 후 후석은 세상의 변화가 극심함을 깨닫고 입산의 뜻을 굳히고 선조인 석문거사가 거처하였던 石門으로 은거하는 ‘抱道自靖’의 뜻을 실행하였다.⁴⁶⁾ 후석이 석문으로 들어가자 遠近의 많은 士友들이 推宗함으로 후석은 강학활동은 다시 시작되었다. 또 동문들이 더욱 많아지자 契를 하나 設하고 講義會文의 뜻으로 그 명칭을 ‘講會’이라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석문강회는 매년 3월 10일, 9월 10일에 講信會합의 자리를 베풀어서 술로써 취하고 德으로 배부르며 道義로 모여서 會講하였다.⁴⁷⁾ 회강에서는 매년 相揖禮讀規⁴⁸⁾를 암송하며 鄉約을 보급하고자 하였다. 후석이 가장 힘써 익혔던 학문은 小學書였는데 향약은 소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유교적 규약이었다. 즉, 향약은 유교적 예절과 풍속을 향촌사회에 보급하여 도덕적 질서를 확립하고 미풍양속을 진작시키며 각종 재난을 당했을 때 상부상조하는 유교적 사회질서를 유지

所監臨者焉 此其不可受者三也..

45) 『聳珍誌』 上, 9-12쪽.: ‘卻金顛末’, ‘抵本郡守’, ‘抵三巨里憲兵所’

46) 『後石先生文集』 四, 後石遺稿 卷之二十五, 附錄, 行狀, 566쪽.:...自世變此極尤浸入山之志 入處石門先廬 居數年..

47) 『聳珍誌』 上, 石門精舍講會錄序 三首, 23쪽:...

48) 『聳珍誌』 上, 相揖禮讀規, 27쪽. 父子有親君臣有義夫婦有別長幼有序朋友有信 右五教之目

博學之審問之慎思之明辨之篤行之 右爲學之要

言忠信行篤敬懲忿窒慾遷善改過 右修身之要

正其義不謀其利明其道不計其功 右處事之要

己所不欲勿施於人行有不得反求諸己 右接物之要

得業相勸過失相規禮俗相交患難相恤 藍田呂氏鄉約

하는 실천규범이었는데 후석은 향약을 강화, 보급함으로써 당시의 사회를 안정시키고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석문정사에서 강회는 191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⁴⁹⁾ 1915년(乙卯年)이후의 강회안 명부에는 254명이 등재되어 있어 석문강회의 당시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 강회는 후석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1936년(丙子年)이후의 강회안 명부에는 138명이 등재되어 있다.⁵⁰⁾

석문정사의 강회록을 보면 당시에 유학자들의 활동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 문학사에서는 1910년대, 1920년대를 포함한 근대전환기의 한문학의 활동 양상이나 세력 등이 파악되어 있지 않다. 이는 실제로 한문학의 활동이 침체되거나 소멸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무렵의 한문학의 실체에 대한 조사와 고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910년 이후를 근대문학의 발아기와 정립기로 보면서 한문학의 침체기라고 짐작하는 것과는 달리 한문학 생산자들은 오히려 그 시기에 더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더 많은 詩會와 講會가 열렸고 文集들을 발간하였다. 그것에 대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범박하게 생각할 때는 사회나 향약, 강회 등의 활동이 위정척사운동의 한 방법으로, 또 저항운동의 한 방법으로 행해졌다고 짐작할 수 있다.

석문정사에서 수년을 지내는 동안 문생들이 점점 많아지자 동지 문생들은 평소에 후석이 사랑하여 은거하기를 원하던 聳珍山에 精舍를 築室하기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발의되자 門生들과 士林들은 다투어서 出義하여 1916년에 役事를 시작하여 1917년에 정사를 완성하였고 그 해 9월에 후석은 문인들을 이끌고 석문으로부터 용진정사로 강학의 자리를 옮겼다. 처음에는 석문에서의 강회를 이었다는 뜻으로 石南精舍라고 했는데 후에 湧珍精舍라고 고쳐 불렀다.⁵¹⁾ 정사가 완공되어 이거한 뒤로 후석

49) 『聳珍誌』上, 石門精舍講會錄序 三首, 23쪽:..余自癸丑從後石先生於石門今三年..

50) 『聳珍誌』上, 附講會案乙卯以後, 講會案其二丙子以後, 23-26쪽.

51) 『聳珍誌』上, 建築事實, 18쪽:..居數年 門人相與謀曰 先生既入山 吾輩可不築一精

은 그 곳에서 침식하면서 講道自樂하여 늙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1931년에 병으로 귀가하여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 곳에 머물렀다. 용진정사로 강학의 자리를 옮긴 후에도 제자들은 더욱 많이 모여들어 새로 신축한 堂室도 다 수용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으며 용진정사에서 해마다 치뤄진 春秋設講習禮에 모인 자들이 항상 수백인에 이르렀다고 한다.⁵²⁾

후석은 평생을 교육자로서의 자신의 소임에 철저하였다. 그는 후진들을 교육하는데 열심을 다하여 격려하고 많은 것을 성취하도록 하였으며 항상 간사한 것을 막고 邪說을 중지시키는 것을 자신의 소임으로 삼았다.⁵³⁾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는 엄격하게 대하여서 諸生들 중에서 가르침을 청한 자가 혹 字紙로 溷紙를 삼으면 책망하여 말하되 先聖賢이나 先祖들의 諱는 다시 돌이킬 수 없으니 수습하여 씻은 후에 불태우라 하였으며 옛적에 선조들은 평생토록 字紙를 버릴 때에는 반드시 수습하여 香湯으로 씻은 연후에 불태웠다고 가르쳤다.⁵⁴⁾ 후석은 평소에도 충실하고 정성스럽게 제자들을 인도하여 가르치는 데에 게으르지 아니하였지만⁵⁵⁾ 만년에 수 년 동안 중풍으로 행보가 자유롭지 못할 때에도 문인들과 더불어 강론하기를 쉬지 아니하였으며 만약에 어려운 것을 물어오면 脫然하여 마치 고질병이 깨끗이 나은 것처럼 몸소 誨諭하기를 부지런히 하여 조금도 피로한 기색을 보이지 아니 하였다.⁵⁶⁾

舍於所嘗留意之地 以爲問業之所乎 議既發門生及士林爭先出義 始役於丙辰 成於丁巳 是年九月率門人自石門移置臯比 因名之曰 湧珍精舍初名曰石南精舍...

52)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五, 附錄, 家狀, 549쪽: ...至丁巳春 精舍始成 日寢處其中 講道自樂 不知老之 將至於是 弟子益進 橫經問難 堂室難容 而諄諄提掖 教之不倦 春秋設講習禮 會者常數百人...

53)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五, 附錄, 墓表, 588쪽: ..方獎育後進 捉掖而 激勵之多所成就 常以距詖息邪爲己任..

54)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五, 附錄, 遺事, 598쪽: .. 諸生之請業者或以 字紙爲溷紙則責之曰 先聖賢與先 祖姓諱在後勿復 爲收洗而燒之曰 昔王曾父生平 見字紙遺棄 必拾而以香湯洗之然後焚化..

55)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五, 附錄, 家狀, 549쪽: ...而諄諄提掖 教之不 倦...

56)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五, 附錄, 家狀, 550쪽: ... 先生自數年來偶患 風痺行步不得任意 而與門人講論不輟 如有問難脫然若沉疴之祛 體誨諭疊疊少無疲勞

4. 후석 오준선의 저술활동과 문학활동

4-1. 후석 오준선의 저술활동

後石의 문집으로는『後石先生文集』이 있으며 후석의 門人錄인『聳珍誌』가 있다. 후석의 문집은 후석이 세상을 떠난 1932년부터 문집 간행에 관한 논의를 2,3차례 하고 1933년 봄에 교정하고 정서하고 인쇄하는 데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1934년에『後石遺稿』총 13권, 183帙을 간행하였다. 당시에는 모든 출판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倭法이 있었고 만약 위법한 것이 있으면 저지를 당하는 때였다. 후석의 문인들은 후석의 글들이 의리에 엄정한 것들이 많으므로 倭人들에게 저촉되는 것들이 頗多하여 출판의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직접 간행하고 1934년 5월 5일에 행해진 鄉飲酒禮 때에 모인 영호남의 士林들에게 모두 배포해 버렸다. 1년이 지난 1935년 봄에야 후석 문집의 간행과 배포 사실을 알게 된 왜경들은 용진정사에 와서 간행의 경위와 간행부수, 배포 부수 등에 대해서 문인들을 조사하였다. 문인들은 모두 80帙을 간행하여 배포가 모두 끝나고 남은 것이 2帙 뿐이라고 대답하니 그 2帙을 일단 압수하여 주재소로 가지고 가고 각 도와 군에 배포된 것을 密察하여 끝내 50여帙을 압수하였고 『後石遺稿』는 禁書가 되었다.⁵⁷⁾ 문집 간

之色....,

57)『聳珍誌』上 37-38쪽:文集遭禍事實,.. 先生平日著述文字不爲不多 而常以不滿於意 旋作旋棄 入山以後門人哀集者略三十卷 辛未先生歿 壬申刊行之議齊發 再三會議於精舍 癸酉春始設刊所校讎正書挖至七八箇月印役經六七箇月凡一年半而告功總十三卷而一百八十三帙也 甲戌五月五日行鄉飲酒禮而落之嶺湖士林之來會者五百餘員 時倭法有出板許可若違法則見沮 先生之文觸於倭者頗多 而率皆不出許而直刊 盖先生義理之嚴正多見於此等文字故也 乙亥五月自本良駐在所有藤井勝三者率巡查一人 入精舍調查其裏許 時門人柳寅協梁孝默崔潤魯沈翰來適來會焉 部長者曰凡幾帙印出耶 答曰八十帙矣 曰頒行幾帙 曰今既畢矣 所存者只二帙也 部長者曰爲先送其二帙於駐在所也 遂去其後倭酋密察於各道各郡終至五十餘帙押収乃已 門人不勝憤鬱撰文告墓

행에 이러한 수난과 고초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후석의 문집 간행에 직접 참여하였던 사람들은 104명에 이르렀고 1934년의 鄉飲酒禮에 出義한 자가 66명, 참여한 자가 500여명에 달하였다. 후석의 문집간행과 수난 과정에 대해서는 ‘乙亥日記’ 및 다른 기록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⁵⁸⁾ 왜경의 방해와 감시가 계속되는 속에서도 문인들은 1939년에는 후석의 畫像과 書籍들을 보존하기 위한 影閣을 지었는데 이 때에도 108명의 문인들이 出義하였으며 이 일로 인해 또다시 왜경의 소환과 심문을 겪어야 했다. 그러면서도 1942년에는 면암 최익현과 송사 기우만의 影幀을 修理하여 奉安하기도 하였다.⁵⁹⁾ 1934년에 간행되었던 『後石遺稿』는 韓國文集編纂委員會에서 『韓國歷代文集叢書444-447』 『後石先生文集』 4권으로 1991년에 재간행되었다.⁶⁰⁾

역사학에서 후석을 주목하게 된 것은 후석의 문집에 수록된 義兵將들과 義士들의 傳記때문이었다. 後石이 쓴 行狀에는 ‘兵使贈兵曹判書宣公行狀’⁶¹⁾과 ‘兵曹參判文村李公行狀’⁶²⁾ ‘順天府使默齋金公行狀’⁶³⁾ 등의 行狀이 실려 있는데 이들 행장의 주인공인 宣居怡(1550-1598), 李光先(1563-1616), 金彦恭(1547-1625)은 모두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전투에 참여하여 왜군들을 격파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인물들이다. 또 『後石遺稿』 卷之二十四에 실려있는 ‘難窩吳公繼洙行狀’⁶⁴⁾과 ‘朝鮮逸民植齋奇公宰行狀’⁶⁵⁾ ‘蘭坡鄭公錫珍行狀’⁶⁶⁾의 행장을 썼는데 행장의 주인공들인 吳繼洙(1843-1915)와 奇宰(1854-1921), 鄭錫珍

58) 『聳珍誌』上 37-42쪽: 附文集刊所有司分定記癸酉, 附乙亥日記, 附門人聯名告墓文

59) 『聳珍誌』上 42-44쪽: 影閣建築事實, 先生畫像贊, 附影閣創建時出義錄

60) 吳駿善 著, 『後石先生文集』, 韓國歷代文集叢書 444-447, 韓國文集編纂委員會, 景仁文化社 刊行, 1991.

61)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二, 170-180쪽.: 兵使贈兵曹判書宣公行狀,

62)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二 180-184쪽.: 兵曹參判文村李公行狀

63)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二 193-198쪽.: 順天府使默齋金公行狀

64)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四, 404-418쪽.: 難窩吳公繼洙行狀

65)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四, 421-428쪽.: 朝鮮逸民植齋奇公宰行狀

66)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四, 439-447쪽.: 蘭坡鄭公錫珍行狀

(1851-1894)은 모두 조선 말기의 유학자들로 을미사변 이후에 기우만이 일으켰던 의병운동에 참여하였다가 고초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였던 유생의병들이었다. 또 『後石遺稿』卷之二十四에는 ‘義兵將奇參衍傳,’⁶⁷⁾ ‘義兵將高鹿泉光洵傳,’⁶⁸⁾ ‘義士金準全垂鏞合傳’⁶⁹⁾ 등의 전기가 실려 있는데 이들 전기의 주인공들인 奇參衍(1851-1908)高光洵(1848-1907), 金準(1871-1908),全垂鏞(1878-1910) 역시 을미사변이후 기우만을 중심으로 한 의병운동에 투신하였다가 전사하거나 피살, 사형되었던 의병장들이었다.

역사학에서는 후석 문집에 실려 있는 이러한 글들에 주목하여 후석을 위정척사운동과 의병운동에 앞장 선 인물로 조명하여 왔다. 그리하여 1970년에 광복 25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 독립운동사 사료 연구가 후석의 의병 항쟁사 자료를 기초하여 편찬한 것이었다고 하며 2006년에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주최로 독립기념관에서 <오준선과 한말의병>⁷⁰⁾이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었다. 2011년 11월에는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주최로 <후석 오준선의 생애와 사상>⁷¹⁾을 주제로 한 연구발표가 있었다. 여기에서도 ‘오준선의 가계와 생애’, ‘오준선의 학풍과 성리사상’, ‘오준선의 의병전 저술과 후학양성’ 등 후석의 의병항쟁과 관련된 부분들에 초점을 둔 발표들이었다.

일제에게서 해방이 된 이후, 1948년 3월 10일 용진정사에서 士林들이 모여 舍采禮를 행할 때에 자신들의 산중에서의 會講이 40여년이 가까워가고 후석이 세상을 떠난 지가 18년이 되어가며 또한 門人諸公들은 차례로 零落하고 世道는 變遷하고 風雨가 晦冥하여 聳珍誌와 門人錄을 간행하

67)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四, 508-514쪽.: 義兵將奇參衍傳

68)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四, 515-518쪽.: 義兵將高鹿泉光洵傳,

69)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卷之二十四, 519-536쪽.: 義士金準 全垂鏞合傳

70) 노기욱:<오준선과 한말의병>

71) 노기욱, 「오준선의 가계와 생애」, 안동교, 「오준선의 학풍과 성리사상」, 홍영기, 「오준선의 의병전 저술과 후학양성」, 『후석 오준선의 생애와 사상』,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1.11.16.

지 않으면 尋師從遊의 흔적이 考憑할 데가 없게 된다고 하여 門人錄을 간행하고 후석의 묘비를 세우기로 발의하였다. 문인록 발간과 묘비 건립에 出義한 사람들은 모두 669명에 달하였는데 나주지역이 327명으로 가장 많고 함평, 광주, 장성, 고창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협조⁷²⁾로 1949년에 문인록을 포함한 『聳珍誌』를 간행하고 治石을 完役하였다.

『聳珍誌』 門人錄에 등재된 후석의 문인은 모두 632명으로 年齒순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1862년부터 1919년생까지 망라되어 있다.⁷³⁾ 또, 후석의 스승이었던 노사 기정진의 문집⁷⁴⁾ 속에도 후석의 문인들이 88명으로 등재되어 있다.

4-2. 후석 오준선의 문학활동

후석의 문집에 수록된 내용들을 보면 詩 325편, 書 301편, 雜著 26편, 序 70편, 記 156편, 跋 42편, 上樑文 28편, 墓碣銘 104편, 墓表, 墓誌銘 63편, 行狀, 遺事, 傳 75편, 기타(銘, 箴, 贊, 辭, 婚書)13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석의 문집에 수록된 작품들을 보면 후석은 시보다는 문에 능하였다고 보여진다. 이는 후석이 서정적인 문인으로서의 풍모를 갖고 있기보다는 학자이자 교육자인 이론가로서의 면모를 더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300편이 넘는 書의 내용이 주로 문인들과의 叱正의 내용인 것을 볼 때도 후석이 저술을 통해서도 제자들을 훈도하였다고 보여진다. 후석의 문장은 宏肆淵密하고 駸駸然하여 마치 朱宋의 闔域을 엿보는 것 같았지만 시는 저술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여 조금 지으면 곧 없애버리곤 하였다 한다.⁷⁵⁾

72) 『聳珍誌』上 48-57쪽: 門人錄刊出及堅碑事實, 文人錄并碑役所通文, 附有司分定記, 附淵源各家出義錄.

73) 『聳珍誌』下 1-27쪽: 後石先生門人編

74) 蘆沙先生紀念事業會, 『蘆沙先生全集』附 答問類編, 「淵源錄 先生門人編, 諸家門人編」, 927-928쪽.

그렇지만 文人으로서의 품모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詩作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으며 作詩한 것이라도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바로 없애버리곤 하였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문집에는 그의 시작품이 325편이나 수록되어 있으며 또 문집에 수록된 글들이 대부분 입산 이후의 글들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⁷⁶⁾ 실제로 후석이 지은 시나 글의 양들은 방대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후석의 시는 주로 同遊門生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흥에 겨워 이루어졌다. 후석은 어릴 때 泉洞寓舍에서 詩會를 할 때마다 ‘清遊偶卜丹江夜/ 下俚難和白雪春’이란 구절을 늙어서 백수가 될 때까지 잊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참여하였던 詩會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였다.⁷⁷⁾ 또한 매양 淸夜月明이면 孔懷之情을 이기지 못하여 번번이 詩經의 常棣章을 암송하면서 형제들이 모여서 화락하는 것에 이르면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數行을 暗誦하였다.⁷⁸⁾ 후석은 주량이 심히 크고 風采는 英發하였으며 마음이 합하는 사람들과 서로 만나면 言論은 高爽하고 縱談은 今古에 이르면서 其傷時憫俗之意를 술과 글에다가 자주 나타내었다. 또한 옛사람들의 殺身成仁處의 부분에 이르면 번번히 격앙하여 마치 친히 당하는 것처럼 하였다.⁷⁹⁾ 후석이 주로 암송하였던 것들은 出師表와 伯夷傳 등이었는데 흥중의 壹鬱한 것을 펴고 개연히 朱夫子가 있는 것처럼 여러 번 영탄하면서 깊은 뜻을 밝혀내었다.⁸⁰⁾

75)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卷之二十五, 附錄, 家狀, 559쪽.:..., 文辭宏肆淵密駸駸然 窺見朱宋闔域 而雅不喜著述旋作旋棄..

76)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卷之二十五, 附錄, 家狀, 559쪽...入山後門人哀集者若干卷..

77)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五, 附錄, 家狀, 592쪽: ...又曰少時詩會於泉洞寓舍 有清遊偶卜丹江夜下俚難和白雪春之句 至老白首而不忘云..._

78)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五, 附錄, 家狀, 553-554쪽:..每淸夜月明不勝 孔懷之情輒誦常棣章至兄弟 既翁和樂且湛嗚咽不成聲 因泣下數行..

79)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五, 附錄, 家狀, 553쪽:..先生酒戶甚寬與會心人相遇 風采英發 言論高爽 縱談今古 其傷時憫俗之意 屢發於文酒之餘 至於古人 殺身成仁處輒慷慨激昂若身親當之 ...

80) 『後石先生文集』四, 後石遺稿 卷之二十五, 附錄, 行狀, 571-572쪽: ..每淸夜月明誦出師表伯夷傳等 以宣胷中壹鬱慨然有朱夫子 樓下詠歎 底意明乎..

후석이 수학하던 시절 주로 공부하던 곳은 志於齋, 永思齋, 石門墳菴 등이었는데 이곳들은 모두 그의 집안 선조들이 강학하고 退休終老하던 장소였다.⁸¹⁾ 후석은 일제의 강제 합병 이후 恩謝金 却金 사건 등으로 세상에 대한 뜻이 전혀 없어지자 다시 이곳들을 찾아 은거하였으며 그를 찾는 문인들과 함께 강학활동을 펼쳐 나가는 것으로 뜻을 삼았다. 그리하여 세상을 떠나기까지 20여년이 넘게 석문정사, 용진정사 등에서 강학하였으므로 자연히 이곳에서 문인들과 같이 읊은 시들이 많다. 후석이 가장 애중하게 생각하여 만년을 보냈던 곳은 용진정사이다. 석문에서 강학하다 문인들이 용진산에 정사를 건축하여 강학의 장소를 마련하자 이주하면서 지은 후석의 聳珍精舍原韻 2수는 다음과 같다.

聳珍精舍原韻 二首 後石先生

晚吾識得好緣業	늦게야 내가 깨달음을 얻고 좋은 인연의 일도 얻고
爲愛林泉此卜居	임천을 사랑하였더니 위하여 이 곳에 터잡아 주었네
碧澗循除鳴玉韻	푸른 시내는 섬돌을 맴돌며 구슬 소리로 노래하고
靑山入戶潤床書	청산은 집 안으로 들어와 潤床 위의 책이 되었네
盟深猿鶴塵無累	심히 깊으니 원숭이나 학들은 속세에 매임 전혀 없고
跡伴雲霞世與疎	걸음마다 구름과 저녁노을 동반하니 세상과는 멀어지네
遊息棲遲惟我適	놀며 쉬며 지내는 것 오직 나에게 적당하니
一區風月浪吟餘	이 곳에서 풍월 읊는 것만 남은 여가로구나

其二

古洞清幽日月閒	옛 고을은 맑고 그윽하고 일월은 한가하니
腥羶世界別人寰	더럽고 추한 세상과는 다른 別人들의 세계로다
禪房舊蹟空流水	옛 절 터 자리에 흐르던 물 비었는데
我屋新成近碧山	우리집 새로 지으니 푸른 산이 가깝구나
珍岳最奇天半色	珍岳은 높고 기이하여 하늘이 절반만 보이고

81) 『聳珍誌』上, 卜居始末, 9쪽.: 志於齋 齋在道林先生從先祖東岡先生講道之所 石門墳菴在偉本面石門洞即先生先祖石門先生休退終老之所 永思齋在赤良面大明洞傍祖生老堂先生居廬之地..

錦城偏愛霧中顏 금성은 안개 속의 얼굴만을 사랑하네
 哦松裁菊無餘事 소나무 노래하기, 국화 가꾸기 외에 또 다른 일 없으니
 懶把藜筇任往還 82) 게으르게 지팡이 짚고 내키는 대로 왕래하는구나

후석이 마음에 흡족하여 聳珍精舍原韻을 짓자 吳光洙, 高光善, 李載亮, 李彩圭, 吳根厚, 林相熙, 李章憲, 任漢穆, 金珍鉉, 吳弼善, 梁夏默, 李璇鎬, 宋榮直, 沈翰求, 金始中, 林禎圭, 金永銓 등 17명의 문인들이 여기에 차운하였으며⁸³⁾ 이외의 개인 문집들에도 聳珍精舍原韻에 차운한 시들이 있다고 한다.⁸⁴⁾

후석이 강학활동에 열중하던 1918년 12월에 고종이 승하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의 인심은 황제가 승하하였어도 倭人들을 두려워하여 國喪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하여 의견만 분분할 뿐이었다. 이에 후석은 ‘庚戌年 이 지나간 지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다만 倭賊이 있는 것만을 알고 君父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통분하면서 임금을 위해 服을 입고 門中の老少들을 데리고 志於齋에서 뜻한 이후 다시 門人들과 精舍의 앞에 있는 큰 바위 위에서 통곡하니 울음소리와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고종의 인산일이 1919년 2월로 정해지자 후석은 陪從하는 문인들 수십인과 함께 靑문에 이르러 號哭 返魂한 뒤 남하하여 다시 용진정사에 은거하였다. 뒷날 후인들은 후석이 문인들과 함께 올라 號哭하던 바위를 泣弓이라 불렀는데 이는 荊湖의 故事에서 취한 뜻이었으며 1934년에는 문인 李璇鎬가 그 바위에 크게 泣弓巖이라고 새겨 넣었다. 용진지에 이 때의 일에 대한 문인들의 기록과 51명의 문인들이 지은 泣弓巖韻이 있다.⁸⁵⁾

후석의 풍류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壬戌年(1922년)가을에 황룡강에서 열었던 船遊이다. 壬戌年은 중국 北宋의 시인 蘇東坡(1036-1101)가

82) 『聳珍誌』上, 30쪽.: 聳珍精舍原韻 二首

『後石先生文集』一, 『後石遺稿』卷之二, 詩.: 湧珍精舍原韻 二首

83) 『聳珍誌』上, 30-32쪽.: 聳珍精舍 附次韻

84) 권수용, 「호남의 근대 누정 작가 작품 연구 - 奇宇萬, 吳駿先(善), 高光善을 중심으로 -」, 『동방학』제19집, 2010.

85) 『聳珍誌』上, 3-8쪽. : 泣弓巖事實, 附泣弓巖事實記, 附泣弓巖韻無順

7월 16일 밤에 달 밝은 적벽강에 배를 띄우고 遠遊하면서 그 유명한 적벽부를 지었던 해이다. 후석은 어렸을 때 蘇東坡의 赤壁二賦를 보고 노상 그것을 외우며 그 풍류를 즐겨 보고자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저런 현실적인 형편으로는 실현하기가 힘든 꿈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소동파가 적벽부를 지었던 임술년이 다시 돌아오자 후석은 자신의 나이가 이미 72세요, 행보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더 이상은 遠遊의 마음을 미룰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듯 하다. 그래서 꼭 蘇東坡만이, 그리고 중국의 赤壁에서만이 그러한 흥취를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소동파가 즐겼던 그 해 그 시간인 임술년 가을 7월 16일 既望에 同志諸人 40여 명과 나룻배 몇 척을 빌려서 황룡강의 하구에 띄우고 소동파가 즐겼던 풍류를 고스란히 즐겼다. 다음은 그때 후석이 동지 제인들과 즐겼다는 선유의 풍류이다.

밤인데도 달빛은 낮과 같았고 물결은 흰 비단과 같았는데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마치 날개가 돋은 것 도 같고 현실이 아닌 것도 같았다. 사람들로 하여금 蘇子二賦를 암송케 하여 마음을 깨우치니 정신은 清爽하여 마치 물 위에 앉은 신선과 같았다. 마을에서는 홀연히 통소 소리에 맞추어 노래로 화답하니 완전히 적벽부의 정경이었다. 산천의 아름다움인즉 魚山이 屹然히 솟아 있는데 동쪽으로는 聳珍의 절벽이 직립해 있고 서쪽으로는 그 남쪽에는 伏龍이 拱揖하고 그 북으로는 蘆山이 宗이 되어 錦江과 鵲川이 모여 있는데 상 하에 어찌 꼭 武昌 夏口만이 번다함이 되겠는가. 다만 한스러운 것은 사람이 蘇東坡가 아닌 것이로다. 그 러나 河伯이 바다보다 秋水를 크다 하였으니 비록 크고 작고는 한계가 있으나 그 즐거움이 되는 까닭은 한 가지이니 또 무엇을 부러워하겠는가. 이에 술마시며 즐거워함이 심히 쾌적하였다. 슬프다. 즐거움이 극하면 슬픈 것이 인간의 情이라. 時運은 不齊하나 人事가 遷變하고 景物은 依舊하나 山河가 다르니 옛적에 신선을 끼고 遠遊하며 아름다움을 바라던 땅은 없으니 우리들의 오늘밤의 유희는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닐 것이다. 서로 더불어 배를 세우고 탄식할 따름이라. 닭 울음소리 喔喔하고 동방이 장차 밝아올 적에 찬 바람이 사람에게 부딪쳐 몹시 차가워서 머무를 수가 없었다. 돌이켜 江岸에 올라 돌아보며 탄식하여 말하기를 가히 기록함이 없다면 60년 후에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강에서 이렇게 놀았

음을 밝히겠는가. 후에 지금을 보는 것이 또한 지금 옛날을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니 이 기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곳에서의 一故事를 어찌 알리오 드디어 각각 拈韻하여 賦하고 湧珍이 병약한 늙은이인 吳駿善으로 하여금 그 일을 쓰게 하였다. 때는 壬戌년 가을 七月 既望이었다.⁸⁶⁾

그러나 이 때 서로 지었다는 賦는 후석의 문집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때 함께 선유에 참여했던 문인들의 개인 문집 속에는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후석의 한문학 활동을 살펴 보면 당시 한문학 생산자들인 유학자들의 풍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 아울러 당시 유학자들의 문학 활동의 규모와 사회의 모습들을 단편적으로나마 살펴 볼 수 있다. 또 이로 미루어 근대교체기의 한문학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사회적으로 얼마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겠다.

86) 『後石先生文集』2, 後石遺稿 卷之十 記, 373-376쪽, 壬戌秋黃龍江船游記. : 余少也讀蘇東坡赤壁二賦 愛其文章之妙 非食煙火 人語未嘗不欣慕遐想以爲古人雖不可見其江風山月必當依舊不變 思欲以一筇一屐 周遊入極一見赤壁之爲快地 隔萬里 既無乘便 除非列子之御 風博望之星 槎不可得也 然其癡狂遠遊之心 尙未弛叵耐 歲月不與年將八十 戶庭之步不能自運 况復流涎於江南之佳麗耶 是無異坐談 龍肉於是 又自思量曰 人何必蘇公地何必赤壁 而後可以乘月遨遊乎 是歲之秋 天氣甚適 涼飄乍動 忽生江湖之興 約同志諸人優游於龍江下流博山之上 梁君行源辦濟勝之具 連合野航數隻泛乎 中流同舟者 凡四十餘人 是夜月色如晝 波光如練 迴上下羽化如也 憑虛如也 使人誦蘇子二賦 覺心神清爽如坐水仙 府忽有簫聲倚歌而和之完 是賦中情景若其山川之美則 魚山屹然於東聳珍壁立 於西其南伏龍拱揖 其北蘆山爲宗錦江鵲川湊合乎 上下何必武昌夏口之爲多乎但恨人無坡公耳 然河伯誇秋水於海若雖大小有限而其所以爲樂則一也而又何羨乎 於是飲酒而樂之甚快適噫歡極而悲人之情也 時運不齊 人事遷變 景物依舊 山河異 昔挾仙遠矣 望美無地 吾儕今夜之遊無已過乎 相與停舟嘯唏而已 雞唱喔喔東方將明寒風逼人凜乎 其不可留也 反而登岸顧而嘆曰 此不可以無記也 未知後六十年 復有何人於此江辦此遊乎 後之視今亦猶今之視昔則 又安知此記不爲此地一故事否 遂拈韻各賦既使湧珍病姿吳駿善書其事 時壬戌之秋 七月既望也.

5. 결 론

지금까지 근대전환기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유학자 후석 오준선의 활동양상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논문이 한문학적인 관점에서 후석을 고찰하는 처음 논문인 관계로 후석에 관한 개괄적인 것을 다루는 한계로 인하여 후석의 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에 이를 수는 없었다. 그러나 후석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과 소개로 후석의 문학에 관한 고찰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았다는 것과 함께 이 지역의 한문학 생산자의 한 사람을 발굴하여 소개하였다는 데에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아직도 한문학 연구의 미답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근대전환기의 한문학 생산자들의 활동과 한문학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후석 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이 후속되어야 한다는 과제와 근대전환기의 다른 한문학 생산자들의 활동양상을 파악하고 그들의 한문학 고찰을 통하여 근대전환기의 한문학에 관한 정확한 파악과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투고일 : 2013년 1월 1일, 심사 : 2013년 1월 16일~2월 13일, 게재확정 : 2월 13일

참고문헌

吳駿善 著, 『後石先生文集』, 韓國歷代文集叢書 444-447, 韓國文集編纂委員會, 景仁文化社 刊行, 1991.

聳珍誌, 1-57쪽.

蘆沙先生紀念事業會, 『蘆沙先生全集』附 答問類編, 「淵源錄 先生門人編, 諸家門人編」, 927쪽.

『국조인물고』권 28-29 名流.

권수용, 「호남의 근대 누정 작가 작품 연구 - 奇宇萬, 吳駿先(善), 高光善을 중심으로 -」, 『동방학』제19집, 2010. 169쪽.

김성기, 『면앙송순시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8. 273쪽.

김상기, 『한말의병연구』, 일조각, 1997. 83쪽.

노기욱 외, 『후석 오준선의 생애와 사상』,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1. 1-23쪽.

박학래, 「9세기 호남 성리학의 전개와 특징 - 노사 기정진과 노사학과를 중심으로 -」, 『국학연구』제9집.

안동교, 「오준선의 학문성향과 의리정신」, 『유교사상연구』 제47집, 130-131쪽.

오영섭, 『화서학파의 사상과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1999, 371쪽.

玄相允, 『朝鮮儒學史』, 民衆書館, 1977 (6판),

홍순권, 「한말 호남 의병의 계보와 사상 - 고광순 의병활동의 사상적 배경을 중심으로-」, 4쪽.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연구』, 일조각, 2004, 86쪽.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한국학중앙연구원,

http://people.aks.ac.kr/front/tabCon/ppl/pplView.aks?pplId=PP_L_6JOc_A1795_1_0021561)

<Abstract>

A study of the works of the Confucius scholar HuSeok Oh,
JunSeon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of the modern era

Chang, Sun-Hee

This study focuses on the works of HuSeok Oh, JunSeon (1851-1931) in the GwangSan area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of the modern era. From the point of view of Korean literature, the transitional period of the modern era can be thought of as a shift from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to Korean literature. This study investigates Chinese literature during the shift from classic literature to modern literature through the works of the Confucius scholar HuSeok Oh, JunSeon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of the modern era. The study of Chinese literature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of the modern era is meaningful because it shows the realities of the succession, change and shift of traditional Korean literature through the conflict, coexistence and transitional process from classical literature to modern literature.

Since HuSeok Oh, JunSeon has yet to be examined in a literary aspect, this study focuses on his general works to summarize who he was. An in-depth study using fundamental data regarding the literature of HuSeok Oh, JunSeon should be followed.

Key words : The transitional period of the modern era., Gwang-ju,
Gwang-san, The works of the Confucius scholar, Oh Jun-sun,
Korean-Chinese literature

